

21호 2019년 08월 15일

발행인:안창섭 / 편집인:김동석 / 편집:박시온 / 편집디자인:실크로드 인도네시아

Tel. : 021-3002-9090 E-mail : kogaindonesia1@gmail.com 광고문의 : 0858 9060 0962
Add: komp. Graha Cempaka Mas Blok A No. 11, Jl. Letjen Suprapto, Jakarta Pusat



재인니한국봉제협회(KOGA) 새로운 비전을 위한 임시모임 가져
안창섭 신임회장의 주재로 코가의 활성화 방안과 어려운 한인봉제
기업의 현안을 점검하고 코가차원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KOGA 朝泰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Vol. 21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KOREA GARMENT ASSOCIATION IN INDONESIA

김창범 대사, 보고르 및 수카부미 기업인 간담회



지난 1일 주인도네시아한국 대사관은 보고르 수카부미 지역 한국 봉제기업들과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는 김창범 대사를 비롯해 김영미 노무관, 김영상 국세관, 백형민 관세관, 조은영 서기관, 유완수 영사, 박현 직원과 보고르지역 코가 회원사 16명, 수카부미지역 코가 회원사 17명이 참석해 한인 기업 활동 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와 국세, 관세, 노무 관련 주제국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고 심도깊은 대화와 논의를 했다.

간담회 및 기업방문은 오전에 보고르에 위치한 PT. Daehan Global Cibinong 공장 시찰후 보고르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했고 오후에는 수카부미 위치한 PT.Manito World 공장 시찰후 간담회를 실시했다.

검찰, 이달부터 외국인 체포·구속 때 ‘외국어 영장’ 사용

영어·중국어·인니어 등 15개 언어로 번역해 배포…’통역인 동행’도 추진 계획

검찰이 앞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외국어로 번역한 체포·구속 영장을 사용할 방침이다. 수사·재판 절차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영어와 중국어 등 15개 외국어로 체포·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등

의 양식과 주요 죄명 60개의

번역을 마쳐 이달 중으로 일선 검찰청에 배포해 활용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영어, 중국어 외에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1만 명 이상인 국가의 언어인 일어와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등으로도 번역된다.

대검 인권부는 이와 함께 전

국 검찰청에 소속된 통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현장에 통역인을 동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법치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검거

인도네시아, 기본공제액 3,600만 루피아로 인하 방침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득세법 ‘2008년 제36호’의 개정으로 연간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PTKP)를 낮출 방침이다. 지난 25일자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납세자 본인의 기본공제액이 현행 규정의 연간 5,400만 루피아에서 3,600만 루피아로 인하된다.

재무부 세무국 관계자는 “

법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어떤 것도 언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기본

공제액에 대해 납세자 본인이 연간 5,400만 루피아, 부양 가족 1인당 450만 루피아(배우자 1명과 어린이 3명까지)가 가산된다. 아내가 소득이 있는 경우, 남편의 소득과 함께 1억 800만 루피아가 기본공제액이 된다. 새로운 법안은 납세자 본인이 3,600만 루피아, 부양 가족의 가산액은 1인당 300만 루피아로 인하된다. 아내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합산 7,200만 루피아가 된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애니 이코노미스트는

“개정안은 저소득층에 불리한 세제이다. 세금은 본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져야한다”며 기본공제액 인하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기본공제액은 지난 2015년 2,430만 루피아에서 3,600만 루피아로 인상됐으며, 2016년에는 현재 5,400만 루피아가 되었다.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코가 새로운 비전을 위한 임시모임 가져



지난 10일 자고라위에서 코가 집행부 임시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안창섭 신임회장의 주재로 코가의 활성화 방안과 어려운 한인봉제기업의 현안을 점검하고 코가차원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안창섭 신임회장을 비롯해 코가 회장단, 상임사, TF TEAM, 코비 일부인원과 사무국 요원이 참석했으며 새로운 신화창조를 위한 의지를 다시한번 더 확인하는 자리였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조세특별조치' 적용업종 확대 등 시행령 개정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별조치'를 더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령 「2015년 제 18 호」의 제 2차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지 언론 미디어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서 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대상 업종의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의 조세정책 2팀 유니 루완사 과장에 따르면, 개정할 내용은 (1) 투자의 인허가 신청 및 발급 절차를 온라인으로 일원화하는 'Online Single Submission (OSS)' 시스템을 통해 조세특례 신청 가능 (2) 특례대상 업종 확대(현재 145개 업종) 등이며, 정부령 2015 제 18호는 2016년

아시아가 미중무역 마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기악화에 따른 금리인하로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해 달러 환산 채무 부담이 증가하고 경기악화가 심화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8일 보도했다.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 때 보다는 각국의 외환보유고에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일부 국가는 경제기반이 취약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는 지난달 말 이후 약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대응조치로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통화들은 위안화와 동반 약세를 보이기 쉽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중국,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달러화 표시 채무잔고(금융업 제외)는 올 3월 말 기준 모두 1조달러 수준이다. 7월 말부터 8월 7일까지 각국의 통화가치는 1~3% 하락했다.

환율만을 고려하면 일주일 새 달러 환산 채무는 실질적으로 상환 부담이 220억 달러(약 26조7천억 원) 증가한 셈이다.

증가분은 중국이 절반 이상인 120억 달러로 가장 많고 인

도도 31억 달러에 달한다. 인도 중앙은행인 준비은행은 7일 정책금리를 0.35% 인하했다. 경상적자를 내고 있는 인도로서는 금리인하가 자본유출 가속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다.

지난 5년간 달러화 채무가 55% 늘어난 인도네시아는 채무상환 부담이 26억 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고를 달러화로 나눈 '커버율'은 인도네시아가 70%로 중국(620%), 인도(370%), 한국(330%)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날 미국 주식시장은 급락세를 연출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경제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인니 개인정보보호 법안... 벌금은 최대 3천억 루피아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가 제정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법안에 위반한 개인정보 취급업자에 대해 최대 3,000억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되는 법적 규정이 담길 전망이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종류 및 소유자, 이용 규정 악용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소유자의 동의를 서면 또는 녹음하여 첨부하거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감독하

는 직책을 설치하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억~1,000억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사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 사용했을 경우 등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을 최대 3배까지 끌어 올릴 방침이다.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이래, 27년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Poly Bag (LDPE, HDPE, PP, EVA)
- PE Sheet (plain, embossed)
- PVC Bag
- OPP Bag
- Garbage Bag
- Zipper Bag
- Shopping Bag
- Strapping Band

Contact

Marketing Office E-mail:
T. (62-21) 440 3926 bhjangjk@indosat.net.id
F. (62-21) 440 3944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자카르타 차량 홀짝제 확대 시행…한 달간 시범운영



7일부터 홀짝제 적용 구간을 26곳으로 확대하고, 적용 시간도 평일 오전 6시~10시, 오후 4시~9시로 1시간 연장했다. 총 연장 54km로, 주내 도로의 0.85%를 차지한다. 규제를 확대함으로써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 교통 이용을 촉구한다.

관용차량, 연료 수송 등 공공 서비스 차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홀짝제는 주지사령 ‘2018년 제155호’에 따라 지난 1월 2일부터 연장 시행 중이다. BPTJ 측은 지난달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특별 주지사에게 홀짝제 적용 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으며, 아니스 주지사는 최근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교통부 산하의 (BPTJ)은 주요 도로에 도입한 자카르타 수도권 교통운영국 차량 진입 규제인 홀짝제에 대해 구간 및 시간을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 베트남, 2020년까지 교역액 100억 달러 목표달성 가능

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사관 입주 하디 대사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양국 간 무역액이 2020년 까지 100억 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입주 하디 대사는 또한 “올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간의 무역액이 약 96억~9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따라서 2020년에는 100억 달라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많은 나라들과의 무역적자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베트남과의 양자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했다고 그는 밝혔

다. 그 예로, 상반기 인도네시아-베트남 간 무역액이 42억 6천만 달러에 달했고 인도네시아는 10억 4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

한편, 입주 대사는 베트남은 최근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동남아시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경쟁국으로 남아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2019년 상반기에 184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국내총생산(GDP)의 6.76% 성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투자조정청(BKPM)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의 총 외국인직접투자는 151억 7000만 달러, GDP는 5.07% 성장했다.

입주 대사는 또한 “베트남이 공격적인 전략으로 베트남의 경제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들은 기회를 이용할 줄 안다”고 말하면서 인도네시아가 베트남의 성공적인 경제 정책을 연구하여 시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있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paran.kwo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용상 : 0815 1902 4176

시내의 차량 수를 줄이기 위해 홀짝제 운행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계도기간을 거쳐 적용할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교통체증 완화과 대기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홀짝제 확대는 8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시범운영 후 9월 9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홀짝제 확대 후 적용 구간

1. Jl Pintu Besar Selatan
2. Jl Gajah Mada
3. Jl Hayam Wuruk
4. Jl Majapahit
5. Jl Medan Merdeka Barat
6. Jl MH Thamrin
7. Jl Jenderal Sudirman
8. Jl Sisingamangaraja
9. Jl Panglima Polim
10. Jl Fatmawati (mulai simpang Jl Ketimun 1 sampai simpang Jl TB Simatupang)
11. Jl Suryopranoto
12. Jl Balikpapan
13. Jl Kyai Caringin
14. Jl Tomang Raya
15. Jl Jenderal S Parman (mulai dari simpang Jalan Tomang Raya sampai dengan simpang Jl KS Tubun)
16. Jl Gatot Subroto
17. Jl MT Haryono
18. Jl HR Rasuna Said
19. Jl DI Panjaitan
20. Jl Jenderal A Yani (mulai simpang Jl Perintis Kemerdekaan sampai dengan simpang Jl Bekasi Timur Raya)
21. Jl Pramuka
22. Jl Salemba Raya
23. Jl Kramat Raya
24. Jl Senen Raya
26. Jl Gn Sahari, dan

의류 뜨리술라, 중부 자바에 공장 신설 계획



▲ 산또소 뜨리술라 인터내셔널
사장

인도네시아 의류 제조 대기업 뜨리술라 인터내셔널(PT Triputra International Tbk)은 중부 자바 주에 공장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비는 1,000억~1,500억 루피아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일자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끈딴에 따르면, 뜨리술라의 산또소 사장은 “서부 자바의 기존 공장 가동률은 거의 100%에 달하고 있다”며 “서부 자바보다 임금 수준이 낮은 중부 자바주에 공장을 신설해 생산 능력을 50%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공장 건설 지역은 미정이다. 타사의 섬유 공장을 인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뜨리술라의 지난 1~6월기 결산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4,597억 3,600만 루피아, 순이익이 34% 증가한 51억 700만 루피아였다. 매출액 중 수출 매출이 77%를 차지했다.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0%의 매출 증가와 15%의 이익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또소 사장은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니폼, 스포츠 의류, 작업복의 판매 확대를 노리고 특히 소방 의류의 수출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재훈의 세무상식

정부령 45호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투자 소득공제, 교육 훈련비 및 연구개발비 비용공제 정부령)



김 재 훈 대표

과세대상 소득 계산 및 당해 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부령 94호(PP Nomor 94 tahun 201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다.

정부령 45호 (Peraturan Pemerintah nomor 45 tahun 2019)

제1조

2010년 정부령 94호중 일부 규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1. 제8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 자본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특정활동에 대한 비용공제 혜택

2. 제29조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1) 선도산업(Industri Pionir)에 신규 투자하는 납세자로서 소득세법 제31A조의 혜택을 받지 아니한 자는 투자법(Undang-Undang Nomor 25 2007) 제18조 (5)에 따른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1)항에 언급한 선도산업이란 광범위한 연계성을 가지며 부가가치 창출과 외부효과가 있으며 신기술을 소개하고 국가경제에 전략적 가치를 지니는 산업을 말한다.

3. 제29조와 제30조 사이에 29A, 29B, 29C의 3개 조항을 넣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A조

(1) 다음의 내국 법인납세자로서 신규 투자 또는 특정 사업분야에 사업확장을 하는 경우

a. 노동집약적인 산업 및

b. 소득세법 제31A조 또는 제29조 (1)의 혜택을 받지 아니할 것 주요 사업활동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 유형고정자산 형태의 총 투자금액의 60%를 특정 기간 동안 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29B조

(1) 내국 법인납세자로서 특정 역량에 관하여 실무훈련, 인턴쉽, 또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하는 경우, 이에 지출된 총 비용의 최대 200%까지 총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1)의 특정 역량이란 실무훈련, 인턴쉽, 또는 전략적 교육을 통해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인적자원 투자의 일부로써 노동력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실현하고 사업·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수요 구조를 종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제29C조

(1) 내국 법인납세자로서 인도네시아에서 특정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지출된 총 비용의 최대 300%까지 특정기간 동안 총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1)의 특정 연구·개발 활동이

란 발명, 혁신, 신기술 획득, 또는 기술 이전을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행하여지는 연구·개발 활동으로써 국가 산업경쟁력 향상과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을 말한다.

제30조

상기 제29조 (1), 제29A조, 제29B조, 제29C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향후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

동 정부령은 공포된 날로부터 유효함
2019.6.25. 공포

자세한 사항은 향후 재무부장관령이 발효되어야 하겠지만 상기 정부령의 주요 내용은 1) 노동집약산업에 투자시 총 투자금액의 60%를 순이익에서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2) 교육 훈련비 지출의 경우에는 최대 200%까지 총소득에서 비용으로 차감하고, 3)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경우 최대 300%까지 총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 하겠다.

<끝>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C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재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 세무분과 사무차장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저서
 -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 TEL : 021 522 2739
e-mail : kimjhoon@bngconsulting.co.kr



PT. BOSUNG INDONESIA

한인기업과 **30**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차세대 리딩기업으로
한인기업과 함께
성장 할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www.bosung.co.id



종이 골판지 생산 / 카톤박스 / 포장용 박스 / 종이 쇼핑백
CORRUGATED SHEET /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 INNER BOX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 Pasar Kemis Tangerang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 (hunting)
Fax : (021) 5935-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위기 넘어라” 기업이 뛴다]

효성 프리미엄 제품으로 차별화...13억 인구에서 ‘스판덱스 기적’ 꿈꾼다

“경영 활동의 모든 해답은 고객에게 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무역 전쟁, 한일 수출규제 등으로 불투명한 국내외 경영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고객중심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효성은 특히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장기적 사업 동반자 관계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신흥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에너지와 신소재 등 신사업을 집중 육성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효성 그룹은 고객과 단순 거래 관계를 넘어 장기적인 사업 동반자 관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동 아이템 개발과 함께 ‘고객의 고객’이 지만족시킬 수 있는 체계 구축에 애쓰고 있다. 우선 효성티앤씨는 ‘패션디자인팀’을 통해 글로벌 의류 브랜드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1차 고객인 원단업체뿐 아니라 ‘고객의 고객사’인 글로

벌 브랜드에 패션 트렌드 및 애슬레저, 캐주얼, 아웃도어 등 컨셉에 따른 의류 디자인을 제안 중이다. 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거점 지역별로 타깃 브랜드를 재선정하고 시장 특성에 따른 디자인 트렌드 제안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고객과 글로벌 전시회 동반 참가 기회를 확대해 ‘고객의 고객’을 직접 만나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고 동반 성장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효성첨단소재는 기술 트렌드 등 정보 교환 기회 확대차원에서 기술교류회 횟수를 늘리고 정례화하기로 했다. 미쉐린, 브릿지스톤 등 글로벌 타이어메이커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맞춤형으로 생산하거나 공동 프로젝트 진행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올해는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저연비 경량화 타이어코드 등을 활용한 제품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 효성그룹은 또 인도·동남아 등 신흥 시장 지배력 확대에도 집중한다. 최근 인도와 베트남·인도네시아를 비롯

한 동남아 지역은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받으며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다. 효성티앤씨는 올해 하반기 완공되는 스판덱스 공장을 중심으로 인도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인도는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매년 7% 이상 성장하는 신흥 강국으로 2030년에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도 스판덱스 시장 역시 무슬림웨어를 비롯해 데님, 랜제리, 스포츠웨어 등 수요가 늘어나며 2012년 이후 연 평균 16% 이상 성장해 왔다. 효성은 고부가가치 차별화 제품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확대해 시장 점유율을 현재 60%에서 70% 선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효성첨단소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 고객 공략에 집중한다. 효성의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4개국 타이어코드 시장 점유율도 2016년 22%에서 지난해 40%로 크게 늘어났다. 베트남 중부 광남성에도 신규 타이어코드 설비를 구축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다.

효성화학 역시 동남아 지역 폴리프로필렌(PP) 수요 확대에 따라 베트남 남부 바리아붕따우성에 PP 원료인 액화석유가스(LPG)저장탱크 및 PP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베트남 공장이 완공되면 PP 생산능력은 연 120만톤 수준으로 기존 60만톤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최근 효성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떠오르고 있는 효성중공업은 수소충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성장 동력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효성은 2000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사업에 참여해 CNG충전기를 납품하면서 수소충전기 관련 기술을 축적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수소충전소 시스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여의도 국회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 수소가스 냉각시스템, 수소가스 압축 패키지 등 수소충전기 주요 부품을 국산화한데다 신속한 애프터서비스와 함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것이 효성 중공업의 강점이다.

효성중공업이 힘을 주고 있는 ESS는 가변적인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설비의 필수 설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효성의 ESS 사업부문은 지난해 매출이 5배 이상 늘어나며 국내 선도 업체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에 ESS 사업소를 열고 현지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 적

극 진출해 5년 내에 글로벌 톱 3 업체로 성장한다는 목표다. 신소재 사업도 적극 확대한다. 효성첨단소재는 전북 전주의 탄소섬유 생산공장을 증설해 탄소섬유 생산량을 연 2,000톤에서 4,000톤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증설은 국내 탄소섬유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탄소 섬유는 철보다 4배 더 가볍고 10배 더 강해 꿈의 소재로 불리며 자동차용 구조재, 풍력, 우주항공 소재, 연료용 고압용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다.

**도서출판/인쇄
광개토**



카다록
도서출판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카렌다
행택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효성 그룹 계열사별 미래 성장 전략

효성 티엔씨
글로벌 의류 브랜드와의 협업
강화로 시장 선도, 스판덱스 공장
중심으로 인도시장 점유율 확대

효첨단 소재
타이어코드 기반으로 동남아
지역 집중 공략, 고부부가치
제품 개발로 점유율 확대

효성 화학
동남아 폴리프로필렌 시장 공략
강화

효성 중공업
수소기술 축적으로 ‘수소사회’
대비, ESS 시장에서 5년내에
‘글로벌톱3’ 업체로 성장



PT. KARY INDOMAS ELOK

인도네시아 모피산업의 선두주자 !

Kawasan Industri Mitrakarawang

Jl. Mitra Selatan II Kav. 89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62 267) 440681-5 Fax. (+62 267) 440686

Contact person

Mr. Baek.K.S E-Mail : dolphin0524@gmail.com
Mr. ADE NENDA HP : +62 857 183 95894
E-Mail: ade.nenda@yahoo.co.id



Polyester BOA

- SOL SDF FABRIC
- SOL MICRO FABRIC
- SOL BR PUB FABRIC
- SOL FDF FABRIC
- BK BOA FABRIC
- BOA PRINTING



Polyester EF & VEL BOA

Available in 2,5mm and various colors
Available in special finishing such as Astra, Mogul and Snail .

인니 금융감독청(OJK), 외자 은행 규제 완화로 투자 촉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외자 은행이 지방 은행을 인수합병(M&A)하는 경우 규제되고 있던 은행 단일 소유권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며, 연내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외자 은행의 투자를 촉진하고 핀테크(IT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 기업에 대한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2일 자카르타 포스트가 전했다.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의 은행 또는 지방 은행 소유 지배를 막기 위한 단일 소유권 규제와 외자 은행의 지방 은행의 출자 비율을 40%로 제한하고 있던 2012년 외자 규제는 외국 은행의 국내 진출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금융감독청은 은행감독국 해루 국장은 “핀테크 기업의 금융 분야 참여와 은행 업무의 디

지털화로, 은행은 신속한 대응과 변화가 필요하다”며 핀테크 기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M&A를 통해 은행의 통합을 추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청은 외자의 진출을 막고 있던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자 은행이 지방 은행 출자비율을 40% 이상으로 완화했다.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MUFG,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Inc)은 지난 5월, 미쓰비시 UFJ 은행이 출자한 다나문 은행(PT Bank Danamon)과 MUFG의 자회사인 아콤(ACOM CO.Ltd)이 출자한 누산 따라 빠라향안 은행(PT Bank BNP)을 합병하고 다나문 인수를 실현했다. 외자 은행이 40% 이상 출자를 인정받은 첫 사례이다.

누구를 위한 인터넷인가?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추진하고 있다. 천년도 더 전에 당(唐)나라의 장안(지금의 서안)에는 서사(西市; western market)가 대단했다. 인기상품인 향신료와 염료를 포함해서 귀한 것들이 실크로드를 따라 전 세상에서 거대한 교역시장인 서시에 몰려들었다. 이제 다시 그 실크로드를 재현하려는 것이다. 엄청난 투자에 비해 수익을 내려면 더디겠지만 이를 교두보로 후진국에 진출하여 이권을 챙기려는 중국의 속셈을 뒤늦게 알고는 저항이 일어나는 모양이다. 공짜가 있겠는가? 나라들 간에 무역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기도 하다.

온 세상이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대륙을 잇는 해저 광케이블도 잘 되어 있다. 이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들인 업자가 있다. 이들은 전화를 가입한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받는다. 그런데 이 통신망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 통신망이 없으면 안 되는 이들을 AR(콘텐츠 사업자)라고 한다. 이들은 통신사업자에게 돈을 낼까? 이용자들이 이미 가입비(월정료)를 내고 콘텐츠를 보기 때문에 내는 망 사용료를 거부스러워하는 것도 이유 있다.

교통(도로)망과 마찬가지로 통신망이 잘 갖추어져져야 한다. 이동성이 있어 편리한 휴대폰은 인터넷폰이다. 유선전화는 회선(circuit)교환방식이다. 연결되면 두 단말(端末)간에 한 회선을 점유하고 있다. 효용이 떨어진다. 그러나 인터넷은 모든 데이터를 패킷(packet)으로 잘게 쪼개 통신망에 흘어버린다. 그러면 알아서 편리하게 목적지로 헤쳐 모이게 되는 것이다. 통화음성도 디지털로 바뀌고는 패킷단위로 이동한다. 통신망도 도로망과 같다. 이용자트래픽

가 많으면 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주석이나 설 명절 주말, 아니 출퇴근 시간대

에도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도로를 확장하고 가변차로를 운영한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 포장을 하고, 지하철이나 고속철 운하 같은 대체수단을 만들기도 한다. 인터넷 망도 유선과 무선으로 가설하지만 유선의 경우, 주로 쓰이는 것이 구리선(동축케이블)과 광 케이블이다. 광케이블은 패킷을 잘 전달하도록 플라스틱 대롱 안에 거울이 들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컴퓨터를 인터넷에 연결하거나 휴대폰을 가입하면 통신료(가입비)를 부담한다. 대부분 월정료를 내는 방식이다. 계약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통신)를 사용한다. 와이파이가 제공되면 무료이기는 하다.

비싼 자동차나 고급화장품을 보면 광고도 고급스럽다.

이 광고비를 누가 부담하는가? 회사가? 아니다. 답은 자동차를 사고 화장품을 쓰는 소비자다.

인터넷으로 보는 디지털 제품(콘텐츠; 영화, 음악, 게임, 강연 등의 가격은 어떻게 매겨지며 누가 부담하게 되는가? 제품의 가격을 구성요소로 보면 재료비, 인건비, 관리 경비가 있다. 성질로 보면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눈다. 디지털 제품은 재료비와 변동비가 거의 없는 셈이다. 한번 만들기에는 큰돈이 들어도 일단 만들고 나면 재료비는 더 들지 않고 사소한 물류비(운송비)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 상품은 물류비가 많이 든다. 디지털 제품은 통신망을 타고 온다. 콘텐츠 그 자체의 가격 말고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누가 부담하는가? 택배비처럼 소비자가 부담한다. 넷플릭스에서 보는 영화 한편은 너무 싸다. 유튜브의 콘텐츠는 중간에 약간의 광고가 거슬리지만 무료다. 돈을 내면 질 좋은 콘텐츠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다. 큰 필름통을 영사기에 걸어 달달달 돌리던 극

장을 기억할 것이다. 지금은 그런 극장 구경하기 어렵다. 디지털로 상영하기 때문이다. 블록버스터에서 비디오테이프를 빌려 보던 것이 오래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블록버스터는 사라지고 넷플릭스가 떴다. 완전한 디지털의 시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통신이 자리 잡은 것이다.

인터넷이 누구의 것인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쓰자고 만들어진 것이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 국가가 독점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이다. 안보나 테러, 미약, 범죄 등에 관한 것 말고는 인터넷을 막아도 안 되고 행정의 자유처럼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막거나 겸열로 통제하면서 일대일로는 왜 만들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조기조(曹基祚 Kij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icho@uok.ac.kr
(82) 10-9080-2449



SunStar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한민국 대표 재봉기, 자수기!

썬스타 인도네시아 직영법인

실속형 패턴출시

- 전회전 가마타입
- 가로300, 세로 200 사이즈 (mm)
- Max Speed 2,200rpm

- ▶ FAST, ACCURATE SERVICE UP
- ▶ 재봉기 / 자수기 부품
- ▶ 보드수리 완벽구비!!!!



신형패턴 SPS/R-3020H, 2010H

SunStar
SWF

Jl. Mahoni 1 Multiguna Niaga Lippo Cikarang No. 3, Sukaresmi
Cikarang Selatan Kab Bekasi – Jawa Barat, Indonesia

Telp. : +62 21 8990 4038 / 4037

인도네시아 총괄 강현욱 이사

재봉기 오경환 팀장 001-62-821-4303-8822
자수기 강현욱 이사 001-62-858-8896-7825

okh@sunstar.co.kr
kevinkang1103@gmail.com

제6회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 · 입선작을 상품화에 추천합니다



▲ 꽃잎들 홍연주 作

해당 분야의 전문 교수들로 회와 창간 38주년을 맞은 전 구성된 한국패션비즈니스학 통의 전문매체인 한국섬유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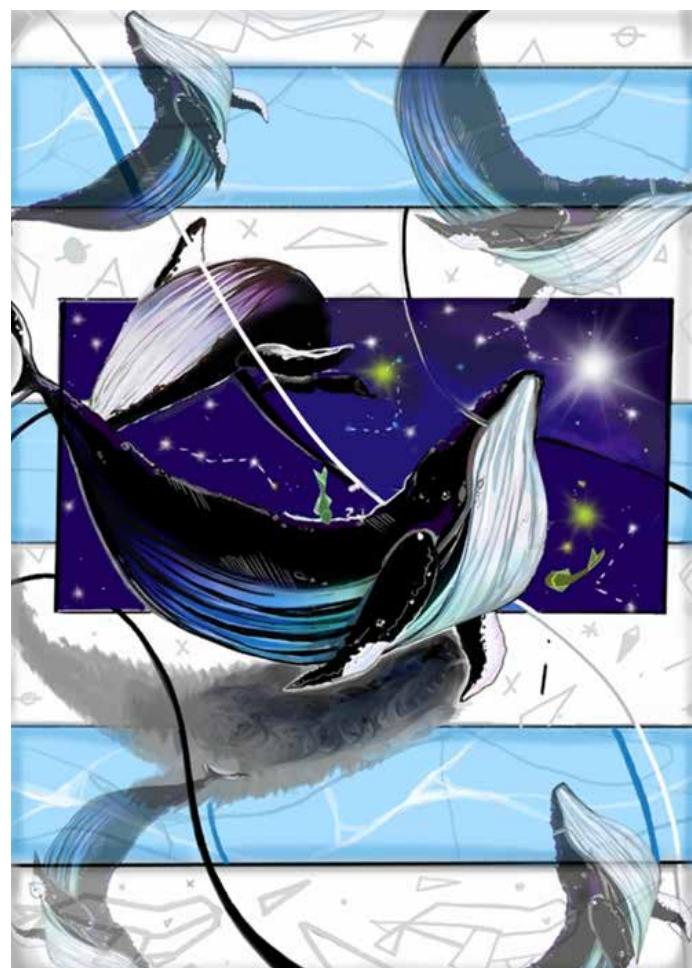
문의 산학협력에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섬유신문이 전개하는 지상전은 섬유·패션·의류산업의 뛰어난 디자인 발굴·육성과 관련업계에 신선한 디자인 연결을 통해 공동 협업 발전하는 원-원 전략입니다. 전공학생들에게는 용기와 도움을 주고 필요한 디자인을 공급받으시는 메이커에는 신선한 충격으로 매출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지 지상전은 수상·입선작 100여점을 50회에 걸쳐 매호 2점씩 소개합니다. 창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전공학생들 작품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수요 메이커에는 다양한 작품 선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상담 : 김선희 부장 02-326-3600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Korea Textile Design Award) 출품작의 모든 디자인 저작권은



▲ 작품명 : Cozy indoor garden 한윤아 作

주최측(한국패션비즈니스학 회·한국섬유신문)에 있습니 다. 무단 도용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inging Eco Fashion Graphics to the World !”

A Leading Printing & Embroidery company



실리콘/졸/라바 및 각종 나염인쇄
듀얼시퀸자수/시퀸자수 및 각종 자수
승화전사/스톤/비드/글리터/호일 작업
최신 설비 및 기계 완비.



(주) 제일 인도네시아

Bekasi Factory : Jl. Siliwangi Km. 9, Narogong, Kompleks Blue Bird, Bekasi
Subang Factory : Dusun Sidamukti, Wanakerta, Purwadadi, Subang
인니영업담당 : 장태선부장 (HP : 0812-5238-8871 / 021-8261-1020)
E-mail : tsjang02@gmail.com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상반기 신발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

인도네시아 신발산업협회 (Aprisindo)에 따르면 상반기 (1~6월) 신발 제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22억 달러였다.

신발 산업 집적지구 반쁜의 최저 임금이 상승해 제화업체들이 공장을 중부자바주 지

방으로 옮긴 것과 미국 스포츠용품 브랜드 ‘언더아머’가 신발 발주처를 베트남으로 옮긴 것 등이 매출 하락에 영향을 줬다.

현지 언론 인베스톨 데일리 7월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Aprisindo의 피르만 바그리

상무 이사는 “반쁜의 공장들이 이전해 자카르타 북부에 있는 판중 빼리옥 항구의 수출이 줄면서 상반기 신발 제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라고 말하며 “한편, 중부자바주 스마랑 판중 마스 항구의 수출액은 26% 증



가한 1억 2,080만 달러로 확대했다”라고 언급했다. 반쁜 주는 신발 제품 전체 수출액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반쁜의 공장 이전의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밖에 지난해 말에는 미국 대형 스포츠용품 언더아머가 반쁜의 신발 제조업체 4개사에서 주문을 중단했다. 베트남 업체로 변경한 것도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

피르만 상무 이사는 “대형 제화 업체의 공장 수는 현재 반쁜에 68개소, 중부자바주에 26개소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자금 부족 문제... 인니 수출에 대한 기여도 저해



인도네시아는 약 6,290만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의 99.9%를 차지(2017년 기준)하여 중소기업들의 규모가 크지만 자금 조달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체 수출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아리프 부디만파 국가경제산업위원회(KEIN) 부위원장은 “금융에 대한 접근성 부족이 수출 중소기업의 낮은 기여도와 저조한 생산성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은행들의 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여전히 수출 중심의 중소기업에 우호적이지 못하며 전통적 은행, 특히 외국계 프라이빗 뱅크는 수출 중심의 중소기업에 특별대출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니중앙은행(BI)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은행들이 지출한 총 대출금 53조1000억 루피아(약 3729억 달러) 중 중소기업 대출 비율은 20%

미만이며, 중앙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93.5%는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 자금의 절반 이상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이용한 비율은 6.7%에 불과했다.

인도네시아 수출입은행 신띠아 로슬리 전무는 2009년에 처음 시행된 “수출업 정부보조액 융자제도(KURBE, Kredit Usaha Rakyat Berorientasi Ekspor)”를 통해 수출 지향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신티아 전무는 “처음 지원한 기업은 63개 중소기업에 불과했지만 2018년 말에는 총 665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하며 “2018년 기준 중소기업 대출 총액은 15조 9000억 루피아로 2010년 637억 루피아에 비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수출입은행은 새로운 수출업체를 위한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 금융 및 경영 교육을 제공한다. 지난해 기초훈련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1500개사, 규모확장 프로그램(scaling-up)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400개사였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50~60개의 중소기업이 그들의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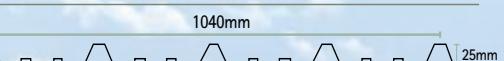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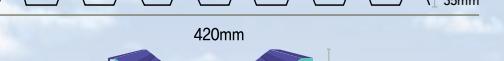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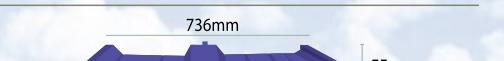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 1. Anti Panas 단열효과
- 2. Anti Bising 흡음효과
- 3. Anti Api 난연효과
-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 1. 35mm Trimdek  930mm 35mm
- 2. 25mm Trimdek  1040mm 25mm
- 3. 35mm Spandek  920mm 35mm
-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420mm 110mm
- 5. Boltless-Seaming Type 55mm  736mm 55mm
- 6. Genteng Metal (기와)  82mm 35mm 20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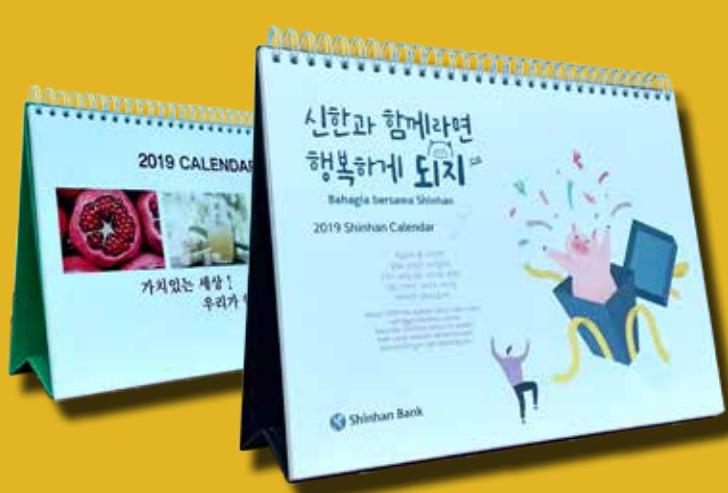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20(庚子年)년을 준비하세요!

2020

광개토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1. 탁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2. 약 20만컷의 고해상고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4.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5.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 의뢰는 : 0858 9060 0962, 021 3002 9090 / 91 입니다



도서출판/인쇄
광개토

반일 기류 타고 ‘베이직하우스·탑텐’ 매출 상승세

쿨에센셜 등 가성비 좋은 아이템 꾸준한 인기몰이
국내 소재로 편안하면서 기능적인 제품 만들어 호응



캐주얼업계가 소비자들의 반일정서를 등에 업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캐주얼 브랜드들은 지난 1997~8년 이후 우리나라가 IMF 사태 맞으면서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베이직하우스 TBJ 코데즈컴바인 클라이드 등은 캐주얼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며 오늘날 시장을 주도하는 패션회사로 키우는 배경이 됐다. 흑자는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국으로 한국을 지목하면서 제2의 IMF 수준을 의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신성통상 탑텐은 발빠른 모델을 교체를 통해 이슈화됐다. 유니클로 대표 모델로 활약한 이나영씨를 영입한 것. 대부분의 매체들이 이나영과 유니클로 탑텐을 언급하면서 탑텐이 핫브랜드로 일약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다. 베이직하우스가 인기상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NO 아베, NO 유니클로와 맞물려 신상품들이 판매력을 발휘하며 관

련 제품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캐주얼업계는 최근 몇 년간 경기 침체와 글로벌 SPA 브랜드들의 등장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tbh글로벌(대표 우종완)의 쿨에센셜은 베이직하우스의 여름 스테디 셀러 아이템이다. 유니클로를 대체 할 아이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수요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고정고객의 수요와 더불어 올해는 가격인하를 최소화해 정상가 판매에도 불구하고, 여성 랭크탑 경우는 전년대비 32%까지 증

가된 판매실적을 보였다. 이는 평균 7% 이상의 판매량 증가의 실적을 가져왔다는 본사 측의 설명이다.

쿨에센셜 소재는 냉감 기본 기능에 반복 세탁에도 형태안정성을 가진 내구성 원단이다. 꾸준한 원사원단 개발을 통해, 폴리스판 소재로 땀 배출이 용이하다. 즉시 속건 돼 무더운 여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다. 반팔 티셔츠뿐만 아니라 남성용 민소매 티셔츠, 여성 용 끈 탑, 4부&3부 팬츠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 이너웨어 홈웨어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쿨에센셜 원단은 효성이 개발한 ‘에어로라이트’ 원단을 사용했다. ‘에어로라이트’는 섬유 내부에 공기층을 함유한 중공사를 사용해, 일반 원단에 비해 가볍고 통기성이

국내 소재의 상품 만들기에 적극 나섰다.

이들 외 대표적인 캐주얼 브랜드로 TBJ, 폴햄, 앤듀, 클라

이드, 닉스, GU#, 휴, 잠뱅이 등을 내세울 수 있다. 적극적인 아이템 제안과 홍보를 통한 고객 알리기에 매진하면 더욱 좋겠다는 아쉬움을 업계는 토로하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 고품의 섬유소재, 완성도 높은 봉제, 심플&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은 이들의 강점이다.

조이너스, 전속모델 김희선 촬영 비하인드



인디에프(대표 손수근)에서 전개하는 여성복 브랜드 조이너스가 전속모델 김희선과 함께 한 광고 촬영 비하인드컷을 공개했다. 11년째 조이너스의 전속모델로 활동해 온 김희선은 더운 날씨에도 완벽한 호흡을 선보이며, 화보 장인의 면모를 과시했다.

또한 브랜드의 다양한 아이템을 그녀만의 독보적인 비주얼로 소화해내며, 세련된 감각을 선보였다. 워너비 여배우 김희선이 함께한 조이너스 19 FW 화보는 8월 말, 조이너스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joinus_official)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인디에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색다른 컨텐츠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PT. PUTRA PILE INDAH

인조 모피
인도네시아 경력 30년
생산 판매 LUXE FUR

**MORE REAL
MORE SOFTNESS
MORE ECO FRIEND**



PT. PUTRA PILE INDAH

Bekasi Int’l Industrial Estate Block C5-1, Jl.Raya Cibarusah ,Lemahbang-Bekasi Indonesia 17550.
Tel. : 62-21-8972255 Fax. : 62-21-8972371

e-mail : ptppi@cbn.net.id

Contact Person: Mr Seung Jo,Lee / Mr Sunardi (Mobile Phone:+62-812-128-8816/+62-813-1984-6595)

9월 신한 퓨처스랩 인도네시아 출범한다... 금융당국도 데모데이 열어 ‘핀테크로 신남방 개척 지원’



▲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생명 디지털캠퍼스에서 열린 신한퓨처스랩 제2 출범식에 참석해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사진=박지호기자)

신한금융이 다음달 인도네시아에 퓨처스랩을 설립한다. 정부에서도 신한금융의 인도네시아 퓨처스랩 개소식에 맞춰 한국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이 대거 참여하는 데모데이를 열 계획이다. 핀테크를 필두로 한 금융권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다음달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코하이브 101에서 퓨처스랩 개소식을 개최한다. 코하이브 101은 인도네시아에만 21개 센터를 보유한 동남아 최대 공유 오피스다.

신한금융은 2015년 5월 금융권 최초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신한 퓨처스랩을 출범했다. 2016년 설립된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에 이은 두 번째 해외 진출이다. 신한 퓨처스랩 인도네시아는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현지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과 협력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내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도모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신한 퓨처스랩 인도네시아 설립에 맞춰 대대적인 핀테크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핀테크지원센터, 한국성장금융 등은 다음달 7일부터 11일까지 3박 5일에 걸쳐 ‘핀테크 데모데이 인 자카르타’ 행사를 개최한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인도네시아 금융협력 포럼도 개최해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와 한국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현황 등을 소개하는 등 양국 간 금융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은 이미 지난 4월에도 국내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최대 창업지원기관인 사이공이노베이션허브(SIHUB)와 공동으로 창업투자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신한 퓨처스랩을 시작으로 현지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국내 금융기관의 동남아 공략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무렵부터 알리바바 등 중국 핀테크 기업의 동남아 진출이 가속화하는 것처럼 국내 금융권에서도 동남아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결제시장 등으로 영역을 확대할 공산이 크다.

핀테크 산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 차원의 관심도 크다. 인도네시아 인구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년 인구가 모바일 환경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1만8000여개에 이르는 군도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한계 역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핀테크

는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는 120개에 이르는 핀테크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불결제와 대

출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시장분석기관 스텝티스타는 인도네시아 핀테크 거래규모가 2022년이면 40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데모데이를 계기로 국내 핀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신남방 정책에 맞춰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 적극 진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오픈뱅킹, 인슈어테크, 금융투자산업과 핀테크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한 사안에서 지속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SINCE 1969

대한민국 No.1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 × 1.0Mpa
- 연료 : 섬유 / 목재 / 종이 / 석탄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 × 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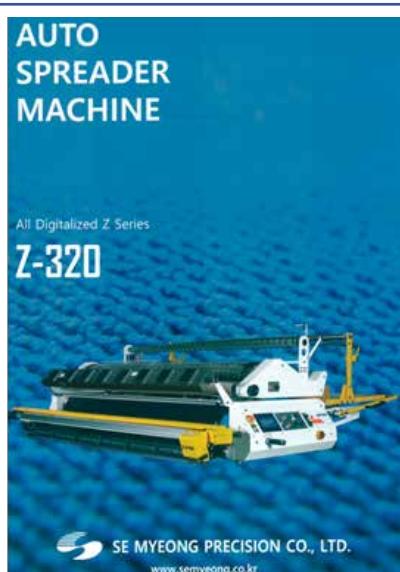


특허번호 10-0870543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덴싱 보일러 • 횡형수관식 보일러 • 수관식 보일러 • 노통연관식 보일러 • 초소형노통연관식 보일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압관수식 보일러 • 진공온수 보일러 • 관류형 보일러 • 소용량입형연관식
--	--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자카르타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Tel. 021.5949.4000 / 5949.4222 Fax. 021.5949.4666	스마랑 정연오 Hp : 0815 1439 0006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	---



AUTO SPREADER MACHINE

Z-320

All Digitalized Z Series

SE MYEONG PRECISION CO., LTD.
www.semyeo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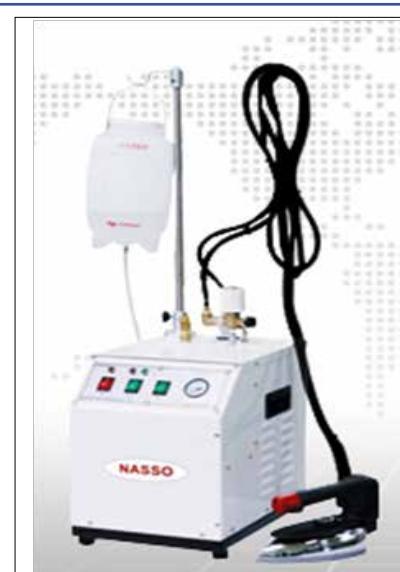


SHRINKING AND FORMING MACHINE

Z-240

All Digitalized Z Series

SE MYEONG PRECISION CO., LTD.
www.semyeong.co.kr



세명정밀 전기보일러

- 용량별 3K, 5K, 10K, 20K
- 성능과 품질, A/S 보장
- 전기보일러의 HEATER
나쁜수질에 관계없이
장기간 사용 가능 품질 보장



PERFECT BOILER

- 매연이 없는 친환경 보일러
- 증폭 시스템으로 적은 연료 폐기물로 고온 고압 유지
-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설치 사용
- 소각, 기름, 가스, 열매보일러 스켈링, 소각기름 가스 열매보일러, 수리, 보수 스팀배관공사...재단테이블 제작설치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예정지, 보르네오섬 ‘깔리만딴’ 낙점

**밤방 브로조느고로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장관
자카르타는 경제 중심지로 역할 분산…재원 마련 관건**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예정지로 보르네오섬 인도네시아령 깔리만딴이 낙점됐다.

밤방 브로조느고로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바뻬나스, Bappenas) 장관은 30일(현지 시간) “깔리만딴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기로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자카르타 포스트 등이 31일 보도했다.

밤방 장관은 “새로운 수도는 깔리만딴이 될 것이며, (정확한) 지역은 나중에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4월 각료회의를 통해 자바섬 이외 지역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자바섬에는 현재 인도네시아 인구의 57%가 몰려 있고, 경제력 편중 현상도 심각하다. 자바섬의 인구는 1억4천782만명이지만 깔리만딴 인구는 1천500만명에 불과하다. 자

바섬의 인도네시아 국내 총생산(GDP) 기여도는 58.4%에 이른다. 특히, 자카르타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고층건물 급증 등의 영향으로 매년 평균 7.5

cm씩 지반이 내려앉는 바람에 도시 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낮아진 상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깔리만딴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기존의 수도인 자카르타는 경제와 산업 중심지로서 역할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5월 동깔리만딴주 꾸따이 까르따느 가라군의 부نة 수하르또 지역과 중앙깔리만딴주 빨랑까라야, 빨랑까라야 인근 까평안군과 구눙마스군, 빨랑 빠사우군 등을 시찰했다. 이중 빨랑까라야는 인도네시아의 국부(國父)인 수까르노 전 대통령이 네덜란드의 식민통치 잔재를 씻어낸다는

의미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며 1950년대에 건설한 도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행정 수도 건설 1단계에서는 인구 150만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며, 이 중에는 20만명의 공무원과 2만5천여명의 경찰과 군 병력이 포함된다.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은 대략 330억 달러(40조원)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건설비용 가운데 대부분을 ‘민관 협력 형태’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라 재원 마련이 신행정수도 계획 실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점유율 1위 !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